

## 성인여성의 노화불안: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신 경 일<sup>†</sup>

신라대학교

본 연구는 일부 지역 성인여성의 연령, 경제수준, 결혼상태 및 교육수준에 따른 자기효능감 및 노화불안의 차이를 알아보고 여성의 연령과 노화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2013년 U광역시 소재 종합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에 등록된 야간 강의 수강자 및 교양과목 수강 여대생, B광역시 소재 사회단체의 시민교육강좌 수강자 등 20세부터 59세까지 성인여성 총 467명이었다. 측정도구는 노화불안 척도(Lasher & Faulkender, 1993)와 자기효능감 척도(홍혜영, 1995)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연령, 결혼상태에 따라 여성의 자기효능감과 노화불안은 차이가 있었으며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자기효능감과 노화불안의 하위요인인 노인접촉 불편감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외 하위요인인 외모불안, 심리적 걱정 및 상실불안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연령과 노인접촉 불편감과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되었다. 노인접촉 불편감에 대해 연령과 자기효능감을 고, 저 두 집단으로 나누어 상호작용 양상을 살펴 본 결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노인접촉 불편감이 적고 연령에 따른 변화가 컸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연령에 따른 노인접촉 불편감의 변화를 조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연구결과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하였다.

주요어 : 여성, 노화불안, 연령, 자기효능감

---

<sup>†</sup> 교신저자 : 신경일,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700번길 140(괘법동)  
Tel : 051-999-5358, E-mail : skimor@silla.ac.kr

한국의 성인여성들은 자신의 노화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교육, 결혼 및 경제수준 같은 구체적 삶의 변인들은 여성들의 노화에 대한 불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의 미에 대한 문화적 기준 때문에 여성들은 노화에 대해 남성보다 더 불안을 느낀다고 하였다(Hurd, 2000; Wolf, 1992). 여성들의 자아개념은 신체적 매력이나 젊은 외모와 관련이 있어(McConatha et al., 2003)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노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에 대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외모에 관심을 가지도록 양육되어온 여성들에게 늙는다는 것은 사회문화적 미의 기준으로 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Davis, 2003)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외모나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자존감을 상실하게 된다(McQuaide, 1998; Zerbe, 2003). 따라서 여성에게 노화란 남성에 비해 더 많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 될 수 있다. 노화를 경험하고 있는 또는 노화에 대해 걱정하는 여성들은 우리 사회의 연령차별주의(ageism), 성차별주의(sexism)라는 이중의 편견으로 인해 자신의 노화를 더 불안한 것으로 느끼게 된다. 성인 여성에게 노화는 일종의 예기적 불안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노화에 대한 불안이 적절한 수준이면 노후에 대한 준비를 위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지나치게 높은 불안은 이를 부인 또는 회피하기 위한 부작용 즉 노화를 막기 위한 과도한 화장, 피부 관리, 성형수술, 지방흡입, 다이어트 등 불필요한 행동을 가져오는 역기능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여성이 경험하는 노화불안은 여성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에 관련된 중요한 일이다.

노화불안이란 노화과정의 핵심이 되는 상실

에 대한 예상과 걱정의 조합(p.247)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나 행동 또는 자신의 노화에 대한 적응을 매개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Lasher와 Faulkender(1993)는 주장하였다. 대학생과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Allan과 Johnson(2009), 박현숙(2009)의 연구결과 노화불안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성공적 노화(강해자, 2012), 자기효능감(김신미, 김순이, 2008), 삶의 질(김신미, 김순이, 2009), 자아존중감과는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지만, 우울과는 정적인 상관을 가진다는 연구(김순이, 이정인, 2007)로 노화불안과 노화에 대한 적응과의 관련성이 지지되었다.

지금까지의 노화불안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보면 성별, 연령, 교육, 결혼상태, 경제수준, 종교, 노화지식 등이 노화불안과 대체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순이, 2005; 이정희, 안영식, 윤소정, 2007; 김순이, 이정인, 2007; 김신미, 김순이, 2008; 김은하, 2007; 최순옥, 김숙남, 신경일, 이정희, 2008; 김옥, 2010; 장휘숙, 2012; Lasher & Faulkender, 1993; Lynch, 2000; Harris & Dollinger, 2003).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는 것이 대부분으로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노화불안이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화불안은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을 뿐, 여성의 노화불안을 직접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노화불안에 대한 선행연구를 연령, 교육, 경제수준, 결혼상태 및 자기효능감에 따라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노화불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령에 따른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연령 간 차이에 대해서는 20대부터 70대까지 미국인

남녀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Lasher & Faulkender, 1993), 20대부터 50대까지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최순옥 등, 2008), 40세에서 60세까지 성인(김순이, 이정인, 2007), 40세에서 59세까지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서순림, 최희정, 2013) 등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대학생(김욱, 2011), 40세 이상 여성(김은하, 2007)에 대한 연구결과는 연령에 따른 노화불안의 차이를 발견하여 불일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대학생과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한 장휘숙(2012)의 연구에서는 노화불안의 하위척도 중 노인접촉 불편감 및 상실두려움에서 연령의 주효과를 보고하였다. 즉 대학생들이 노인보다 노인접촉에 대해 더 큰 불편감을 가지고 있으며 노인들은 대학생보다 노화에 대해 상실두려움을 더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국과 미국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문화의 영향에 관심을 가졌던 Yun과 Lachman(2006)의 연구에서도 노화불안에 대한 문화와 연령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한국인의 경우 젊은 집단이 나이든 집단보다 노인접촉 불편감이 컸지만 상실두려움은 나이든 집단이 젊은 집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장휘숙(201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즉 한국인의 경우 젊은이들은 노인과의 접촉에 대해 불편해하고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상실에 대해 더 불안하게 느낀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인의 경우 여성의 노화불안이 남성보다 높았지만 한국인의 경우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처럼 연령에 따른 연구들은 중년 이상의 연령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대부분이며 남녀를 같이 연구하고 있고 연령에 따른 차이에 대한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수준은 노화불안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데 교육수준이 높으면 노화과정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증가(김순이, 이정인, 2007), 경제적 수준의 상승으로 인한 재정관련 문제 감소(Lynch, 2000), 건강문제에 대한 질 높은 의료적 대처능력 증가 등으로 노화불안이 감소될 수 있다. 교육은 또한 자기효능감 등과도 관련되어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에 자신감을 갖도록 해준다.

성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노화불안에서 불일치한 결과가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노화불안이 높다는 연구(김순이, 이정인, 2007; 김신미, 김순이, 2008)가 있는 반면 최순옥 등(2008)은 노화불안의 하위요인 중 노인접촉 불편감에서는 고학력자들이 저학력자보다 더 점수가 높았으나 심리적 걱정에서는 더 낮다고 보고하였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은하(2007)의 연구에서는 중학교이상 학력자의 노화불안이 더 낮은 학력을 가진 여성들보다 높다고 하여 상반되거나 하위요인별로 다른 결과를 보고하였다.

경제수준에 따른 노화불안에서도 불일치한 결과가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는 일반성인 대상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김순이, 이정인, 2007; 김신미, 김순이, 2008; Lynch, 2000; Abramson & Silverstein, 2006) 중년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은하, 2007)에서는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노화불안이 더 높다고 보고하여 불일치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회적 제도로서 결혼은 결혼관계에 속한 개인에게 경제적,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어 노화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박수미, 한성현, 2004). 배우자의 존재는 경제 문제를 비롯한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지원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일 것이다(서순림, 최희정, 2013; 김신미, 김순이, 2008). 그러나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연구(김순이, 이정인, 2007), 모든 연령층에서 파트너가 있는 여성들이 자신의 매력감소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하며(Rossi, 2004) 독신여성들이 결혼한 여성보다 매력에 대한 관점이 더 융통성있고 나이 들어가면서 자신을 더 매력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Giesen, 1989)는 연구들도 있다. 따라서 결혼에 따른 여성들의 노화불안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자기효능감은 인간 행동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사회인지이론의 관점에서는 주장한다. 자기효능감은 미래의 상황을 다루는 데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Bandura, 1977)으로 행동의 선택과 지속에 영향을 미친다(Lazarus & Folkman, 1984).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노화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가질 수 있어 노화불안이 낮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Lasher와 Faulkender(1993)는 노화불안척도의 타당화를 위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노화불안간의 부적인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김신미와 김순이(2008)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제 변인들과 노화불안과의 관계를 종합해보면 교육 및 경제수준이 높고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노화불안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의 존재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상반된 연구결과

들이 존재하므로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노화불안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선행연구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노화불안의 변화양상에 관심을 가지고 노화불안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구해보고자 한다. 자기효능감은 노화불안과 부적인 관계에 있는 변인으로서 연령과 노화불안의 관계가 일관되지 않은 것은 자기효능감이 완화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에서 기인하였을 수 있다. 즉 연령이 많아지면 경험이 증가하게 되고 경험의 증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확대로 이어져 자기효능감이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증가된 자기효능감은 노화불안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화불안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은 연령이 많아진다고 하여도 노화불안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중년기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김순이와 이정인(2007)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노화불안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기 자신을 가치있게 평가하는 사람은 중년으로서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대해 불안이 높고 걱정이 많을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평가 개념인 자아존중감과 달리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구체적 신념이므로 노화로 인한 불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여성의 연령, 경제수준, 결혼상태 및 교육수준에 따른 노화불안

및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확인하고 자기효능감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여 연령에 따른 노화불안의 변화를 자기효능감이 조절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령과 상호작용하여 노화불안을 강화하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하는 변인을 확인할 수 있다면 노화불안을 이해하고 노화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여성의 연령, 경제적 수준, 결혼상태 및 교육수준에 따라 자기효능감 및 노화불안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여성의 연령과 노화불안의 관계는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다른가?

## 방 법

###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2013년 U광역시 소재 종합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에 등록한 여성으로서 야간 강의 수강자 258명, B광역시 소재 생명의 진화 시민교육강좌 수강자 중 여성 180명 및 B광역시 소재 종합대학교의 교양과목 수강 여대생 42명을 편의표집하였다. 자료수집은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연구자 또는 연구보조자가 직접 설명한 후 참여에 동의하는 자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자기기입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배부된 질문지 중 480부가 회수되었다. 자료수집은 2012년 10월 초부터 2013년 4월 초까지 이루어졌으며 주로 강의시작 5분 전에 질문지를 배부하여 완료된 질문지를 바로 회수하거나 다음 시간에 회수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 자료 13부를 제외하고 총 467부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성인여성의 연령별 분포는 20-29세 94명, 30-39세 144명, 40-49세 117명, 50-59세 112명이었다. 월 평균 가정의 경제적 수입은 150만원 미만 61명, 151만-300만원 120명, 301만-500만원 206명, 501만원 이상 80명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 159명, 미혼 301명, 기타(사별, 이혼, 별거 등) 7명이었으며 교육은 고졸 156명, 대졸이상(전문대포함) 311명이었다.

###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노화불안측정도구(AAS; Anxiety about Aging Scale)는 Lasher와 Faulkender(1993)가 개발한 도구를 최순옥 등(2008)이 번역, 역 번역, 예비조사의 절차를 거쳐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AAS는 4개의 요인(요인 1; 노인접촉에 대한 불편감, 요인 2; 심리적 걱정, 요인 3; 외모에 대한 불안, 요인 4; 상실에 대한 불안)으로 구성된 총 20문항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화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Lasher와 Faulkender(1993)의 노화불안 척도 20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822였으며 하위요인인 노인접촉 불편감 .887 외모불안 .742 심리적 걱정 .717 상실불안 .731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척도는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입각하여 Sherer 등(1982)이 제작하고 홍혜영(1995)이 수정,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3문항으로 일반적 효능감 17문항, 사회적 효능감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

르트 척도이다. 신뢰도는 홍혜영(1995)의 연구에서는 일반적 효능감 .86 사회적 효능감 .71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자기효능감 .84 일반적 효능감 .84 사회적 효능감 .69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척도의 점수는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처리 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령, 결혼, 경제적 수준, 교육수준 별 자기효능감 및 노화불안의 차이는 일원변량분석과 Scheffé 사후검증으로 분석하였다.

2) 제 변인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이때 결혼상태는 명목변수로서 상관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 연령과 노화불안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알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먼저 노화불안 및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거나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공변인으로 채택하여 그 영향을 통제하였다(서영석, 2010).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상호작용 항을 분석할 경우 독립변인과 상호작용 항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및 상호작용변인을 원 점수에서 평균을 뺀 편차점수를 사용하는 중심화(centering)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결 과

여성의 연령, 경제수준, 결혼상태 및 교육수준에 따른 자기효능감 및 노화불안의 차이

여성의 연령, 경제적 수준, 결혼상태 및 교육수준에 따른 자기효능감 및 노화불안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대 여성보다 30, 40, 50대 집단의 일반적 효능감( $F=9.33$   $p<.01$  20대<30, 40, 50대)이 더 높았으며 50대에는 유의하지 않지만 일반적 효능감이 40대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사회적 효능감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총 자기효능감에서는 20대와 50대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30대, 40대와와의 차이는 있었다( $F=4.76$ ,  $p<.01$  20, 50대<30, 40대).

노화불안의 하위요인인 외모불안에서 20대 30대와 40대 50대간 차이가 있었으며 심리적 걱정에서는 20대 50대와 30대 40대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상실불안에서는 20대와 40대간의 차이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노화불안은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감소하는 경향이 보였다( $F=4.79$ ,  $p<.01$ , 20대>40, 50대). 노인접촉 불편감에서는 연령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30대가 가장 높았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요약하면 총 자기효능감과 일반적 효능감은 20대가 타 연령집단에 비해 낮았으며 사회적 효능감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노화불안은 연령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낮았으며 특히 20대의 노화불안이 타 연령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자기효능감과 노화불안에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는 일반적 효능감

표 1. 자기효능감, 노화불안에 대한 연령, 경제적 수준, 결혼, 교육수준별 차이

종속/독립	연령 (Scheffé)			경제수준		
	M	SD	F	M	SD	F
일반적 효능감	1. 58.79	11.26	9.33** 1 < 2, 3, 4	1. 61.56	10.23	.25
	2. 63.27	9.74		2. 63.90	7.55	
	3. 65.12	6.81		3. 62.50	9.22	
	4. 63.93	8.13		4. 63.99	10.99	
사회적 효능감	1. 20.45	3.48	2.51	1. 19.49	4.63	.64
	2. 20.49	4.14		2. 19.98	3.95	
	3. 19.81	4.00		3. 20.00	4.33	
	4. 19.20	4.77		4. 20.41	3.68	
총 자기효능감	1. 79.23	13.62	4.76** 1, 4 < 2, 3	1. 81.05	12.56	.26
	2. 83.76	12.25		2. 83.88	9.89	
	3. 84.13	9.03		3. 82.50	11.63	
	4. 83.13	10.37		4. 84.40	12.65	
노인접촉 불편감	1. 14.89	3.69	1.09	1. 16.43	4.83	.12
	2. 15.70	4.47		2. 14.82	4.21	
	3. 15.57	4.73		3. 15.24	4.12	
	4. 14.95	4.15		4. 15.46	4.49	
외모불안	1. 12.79	4.62	8.17** 1, 2 > 4, 3	1. 11.23	4.18	.43
	2. 12.58	4.10		2. 12.23	3.95	
	3. 11.03	3.43		3. 11.72	4.26	
	4. 10.59	4.28		4. 11.52	4.41	
심리적 걱정	1. 11.55	3.03	4.06** 1, 4 > 2, 3	1. 10.67	2.40	.22
	2. 10.49	2.93		2. 10.43	2.82	
	3. 10.24	2.94		3. 10.94	3.17	
	4. 10.54	2.65		4. 10.23	2.67	
상실불안	1. 14.72	4.12	5.12** 1 > 3	1. 13.10	3.58	.88
	2. 13.35	4.16		2. 13.60	4.29	
	3. 12.57	3.57		3. 13.51	3.96	
	4. 13.50	4.04		4. 13.43	4.23	
총 노화불안	1. 53.95	11.19	4.79** 1 > 3, 4	1. 51.43	8.39	.92
	2. 52.08	9.95		2. 51.08	10.86	
	3. 49.36	9.51		3. 51.42	10.81	
	4. 49.57	10.57		4. 50.49	10.04	

표 1. 자기효능감, 노화불안에 대한 연령, 경제적 수준, 결혼, 교육수준별 차이 (계속)

종속/독립	결혼 (Scheffé)			교육		
	M	SD	F	M	SD	F
일반적 효능감	1. 60.20	10.07	12.12**	1. 60.01	10.07	25.19**
	2. 64.33	8.62	1<2, 3	2. 64.48	8.53	
	3. 68.71	3.09				
사회적 효능감	1. 19.84	3.94	.18	1. 19.76	19.76	.80
	2. 20.09	4.30		2. 20.12	4.37	
	3. 69.71	3.09				
총 자기효능감	1. 80.04	12.47	8.58**	1. 79.77	12.40	18.96**
	2. 84.41	10.79	1<2	2. 84.60	10.74	
	3. 88.57	6.55				
노인접촉 불편감	1. 15.55	4.37	.50	1. 11.58	4.28	4.88*
	2. 15.23	4.30		2. 15.64	4.31	
	3. 14.29	3.82				
외모불안	1. 12.82	4.22	8.20**	1. 11.58	4.33	.41
	2. 11.18	4.07	1>2, 3	2. 11.84	4.13	
	3. 12.14	4.67				
심리적 걱정	1. 11.26	2.82	5.35**	1. 10.63	3.05	.02
	2. 10.33	2.88	1>2, 3	2. 10.67	2.85	
	3. 10.71	4.42				
상실불안	1. 13.96	4.20	3.01	1. 13.90	4.12	2.67
	2. 13.16	3.95		2. 13.25	3.99	
	3. 15.57	2.70				
총 노화불안	1. 53.56	10.52	6.70**	1. 50.81	10.81	.30
	2. 49.89	10.04	1>2, 3	2. 51.36	10.18	
	3. 52.71	13.76				

연령(1. 20-29세/2. 30-39세/3. 40-49세/4. 50-59세) 경제수준(1. 100만원 이하/2. 101-300만/ 3. 301만- 500만/4. 501만 이상) 결혼상태(1. 미혼/2. 기혼/3. 기타) 교육수준(1. 고졸/2. 대졸) 총 자기효능감=일반적 효능감+ 사회적 효능감 총 노화불안=노인접촉 불편감+외모불안+심리적 걱정+상실불안 \*\* p<0.01 \* p<0.05

(F=12.12, p<.01, 미혼<기혼 및 기타집단), 총 자기효능감(F=8.58, p<.01, 미혼<기혼), 노화 불안의 하위요인인 외모불안(F=8.20, p<.01, 미혼>기혼 및 기타집단), 심리적 걱정(F=5.35, p<.01, 미혼>기혼 및 기타집단) 및 총 노화불

안(F=6.70, p<.01, 미혼>기혼 및 기타집단)에서 발견되었다. 요약하면 미혼여성보다 기혼 및 기타집단 여성들이 일반적 효능감과 총 자기효능감이 높고 외모불안, 심리적 걱정, 총 노화불안은 미혼여성이 기혼여성이나 기타집



단 여성보다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졸과 대졸 두 집단 만 존재하여 사후검증은 불필요하였으며 일반적 효능감( $F=25.19, p<.01$ ), 총 자기효능감 ( $F=18.96, p<.01$ ) 및 노인접촉 불편감( $F=4.88, p<.05$ )에서 고졸집단보다 대졸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자기효능감은 높고 노화불안은 낮았다. 그러나 노인접촉 불편감은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화불안의 전반적인 양상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연령, 경제수준, 결혼상태 및 교육수준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노화불안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인여성들의 경우 연령이 높은 집단의 자기효능감은 높고 노화불안은 낮은 경향이 있다. 경제수준에 따른 자기효능감 및 노화불안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기혼집단이나 이혼, 사별 등 기타집단이 미혼집단보다 자기효능감은 높고 노화불안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은 자기효능감은 상승하였지만 노화불안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가장 젊은 집단인 20대 여성들의 경우 자기효능감은 가장 낮고 노화불안은 가장 높은 집단이었으며 미혼집단이 역시 자기효능감은 낮고 노화불안은 높은 경향을 나타내어 20대 미혼집단의 취약성을 드러내었다. 노화불안의 하위요인인 노인접촉 불편감은 다른 요인들과 달리 연령이나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었지만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이 낮은 여성보다 노인접촉 불편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의 연령과 노화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여성의 연령, 경제수준, 결혼상태, 교육수준, 자기효능감, 노화불안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각 변인 간 상관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와 같이 연령은 일반적 효능감 ( $r=.19, p<.01$ ) 사회적 효능감( $r=-.12, p<.05$ ), 총 자기효능감( $r=.11, p<.05$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화불안과의 관계에서는 노인접촉 불편감을 제외하고 총 노화불안 및 모든 하위변인들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 여성들은 나이가 많은 집단이 일반적 효능감이나 총 자기효능감은 더 높은 경향이 있지만 사회적 효능감은 감소하며 노화불안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경제수준과 자기효능감, 노화불안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교육수준은 일반적 효능감( $r=.23, p<.01$ ) 총 자기효능감 ( $r=.20, p<.01$ ), 노인접촉 불편감( $r=.10, p<.05$ )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일반적 효능감 및 총 자기효능감과 노화불안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모두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노인접촉 불편감( $r=-.20, p<.01$ ), 외모불안( $r=-.24, p<.01$ ) 심리적 걱정 ( $r=-.39, p<.01$ ) 상실불안( $r=-.35, p<.01$ ), 총 노화불안( $r=-.42, p<.01$ ). 요약하면 연령이 높은 여성들은 자기효능감이 높고 노화불안은 낮은 경향이 있다. 경제수준은 자기효능감이나 노화불안과 관계가 적고 교육수준은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지만 하위요인인 노인접촉 불편감을 제외한 노화불안과는 관련이 적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노화불안은 부적인 관계로 자기효능감이 증가할수록 노화

표 2. 연령, 수입, 교육, 자기효능감 및 노화불안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										
2	.17**									
3	.13**	-.06								
4	.19**	.04	.23**							
5	-.12*	.06	.04	.37**						
6	.11*	.05	.20**	.94**	.66**					
7	-.01	-.03	.10*	-.20**	-.34**	-.28**				
8	-.21**	-.01	.03	-.24**	-.05	-.21**	.09			
9	-.11*	-.01	.01	-.39**	-.31**	-.43**	.19**	.34**		
10	-.11*	.02	-.08	-.35**	-.31**	-.39**	.02	.56**	.45**	
11	-.16**	-.02	.03	-.42**	-.36**	-.47**	.52**	.75**	.67**	.75**

1. 연령 2. 경제수준 3. 교육 4. 일반적 효능감 5. 사회적 효능감 6. 총 자기효능감=일반적 효능감+사회적 효능감 7. 노인접촉 불편감 8. 외모불안 9. 심리적 걱정 10. 상실불안 11. 총노화 불안=노인접촉 불편감+외모불안+심리적 걱정+상실불안

\*\* p<0.01 \* p<0.05

불안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노화불안과 연령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결혼상태 및 교육수준 같은 인구학적변인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이들을 공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결혼상태 및 교육수준을 공변인으로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연령과 조절변인으로 생각되는 총 자기효능감을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연령과 총 자기효능감, 연령과 총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총 노화불안 및 다른 하위요인에서는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노인접촉 불편감에서만 연령과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이 발견되었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모든 변인에서

공차한계값은 1.0~.61 VIF지수는 1.0~1.09로 나타났다.

표 3에서와 같이 노인접촉 불편감에서 교육( $\beta=.17$ )과 총 자기효능감( $\beta=-.34$ )의 주효과 및 연령\*총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효과( $\beta=-.11$ )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R^2=.12$ ,  $F=20.25$ ,  $p<.01$ ). 외모불안, 심리적 걱정, 상실 불안 및 총 노화불안에서 상호작용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두 번째 연구문제는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노인접촉 불편감에 대한 연령과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단순기울기(simple slope)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연령과 노인접촉 불편감의 관계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자기효능

표 3. 연령과 노화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검증

종속변수	단계	독립(예측)변수	B	표준오차	$\beta$	t	R <sup>2</sup>
노인접촉 불편감	1	교육	.93	.42	.10	2.21*	.01
	2	교육	1.50	.41	.16	3.65**	.10
	3	총 자기효능감	-.12	.02	-.31	-6.95**	
		교육	1.51	.41	.17	3.70**	.12
		총 자기효능감	-.13	.02	-.34	-7.41**	
		연령*총 자기효능감	-.04	.02	-.11	-2.53*	
외모불안	1	결혼	-1.43	.38	-.17	-3.73**	.03
	2	결혼	-1.14	.39	-.14	-2.97**	.06
	3	총 자기효능감	-.07	.02	-.18	-4.02**	
		결혼	-.21	.48	-.03	-.43	
		총 자기효능감	-.07	.02	-.19	-4.10**	.08
		연령	-.70	.22	-.18	-3.12**	
심리적 걱정	1	결혼	-.82	.27	-.14	-3.07**	.02
	2	결혼	-.37	.25	-.06	-1.47	.19
		총 자기효능감	.11	.01	-.41	-9.70**	
상실불안	1	총 자기효능감	-.14	.02	-.39	-9.23**	.16
총 노화불안	1	결혼	-3.15	.95	-.15	-3.30**	.02
	2	결혼	-1.35	.87	-.07	-1.56	.23
	3	총 자기효능감	-.42	.04	-.46	-11.10**	
		결혼	.19	1.09	.01	.17	.24
		총 자기효능감	-.42	.04	-.46	-11.18**	
		연령	-1.15	.51	-.12	-2.27*	

\*\* p<.01 \*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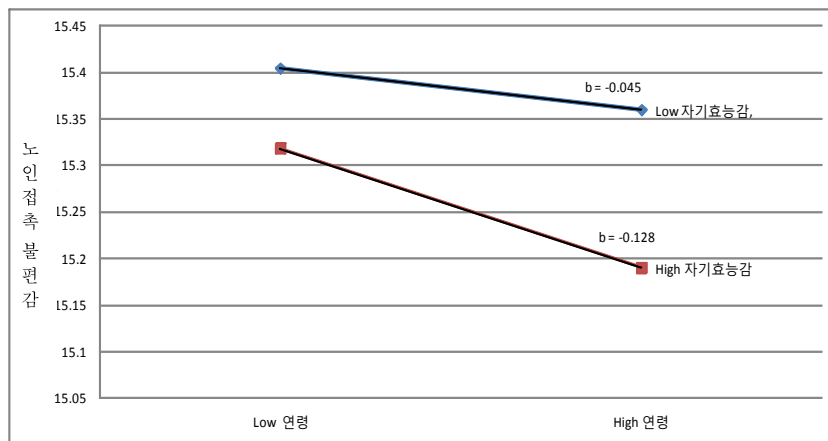


그림 1. 노인접촉 불편감에 대한 연령\*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 효과

감 집단은 높은 자기효능감 집단에 비해 연령의 증가에 따라 노인접촉 불편감이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하였다.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집단은 낮은 자기효능감 집단에 비해 모든 연령에서 노인접촉에 대한 불편감이 낮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접촉 불편감이 크게 감소하고 있었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일부지역 성인여성의 연령, 경제적 수입, 결혼상태 및 교육수준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노화불안을 살펴보고 연령과 노화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선행연구와의 비교고찰을 통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에 따라 자기효능감과 노화불안에 차이가 나타났다. 20대 여성의 자기효능감이 가장 낮았으며 40대 여성이 가장 높은 자기효능감을 나타내었다가 50대에 유의한 수준은 아니나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사회적 효능감에서는 연령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다는 개인적 신념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구체적 믿음 또는 확신(홍혜영, 1995)이므로 본 연구의 대상자인 일부지역 성인 여성들은 40대에 가장 자신감에 차있으며 20대는 아직 자신과 세상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청년실업의 심화현상으로 20대 여성청년 집단의 자신감 저하를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여성은 남성과 달리 나이가 들수록 자녀양육이라는 시간적, 자원

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되며 가족측면에서 나름대로의 위치를 구축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간다는 박수미와 한성현(2004)의 연구와 궤를 같이 한다.

노화불안은 자기효능감과 반대로 20대가 가장 높았으며 나이가 많은 집단은 노화불안이 더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노인접촉 불편감을 제외한 노화불안의 모든 하위요인에서도 20대의 점수가 높아 20대 여성들의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이로 인한 불안을 말해준다 하겠다. 20대 여성들의 높은 노화불안은 노화에 대한 지식부족 또는 자신과 무관한 일로 생각하는 태도 등에서 기인할 수 있다. 노화불안의 하위요인인 노인접촉 불편감은 노인과의 접촉에 대한 거부감과 관련되는 문항으로 자기 자신의 노화에 대한 불안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다른 세 요인들과 다르다. 노인접촉 불편감은 부인이나 반동형성 등 방어기제를 사용하여 노화에 대한 불안을 다루는 사람들을 찾아내며 노인과의 접촉빈도가 낮거나 접촉의 질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점수를 나타낼 것이라고 하였다(Lasher & Faulkender, 1993 p.257). 본 연구 결과 노인접촉 불편감은 연령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30대 여성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30대 여성들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노부모부양에 대한 부담감과 이로 인한 불안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노화불안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40세 이상 중년 및 노년여성에 대한 김은하(2007)의 연구를 제외하고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옥(2011), 대학생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장휘숙(2012),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Yun과 Lachman(2006)의 결

과와 일치하며 김순이와 이정인(2007), 서순림과 최희정(2013), Lasher와 Faulkender(1993)의 결과와는 불일치한다. 따라서 연령에 따른 여성의 노화불안 변화에 대한 일관된 결론을 아직까지 내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추후연구를 통해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살펴볼 때 20대 여성이 가장 자기효능감이 낮고 노화불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부 지역의 대학생 및 보육교사교육원 및 시민강좌에 등록한 여성들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20대 여성들은 자신감이 아직 낮고 노화에 대한 불안은 높은 가장 취약한 여성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40대 여성들이 가장 자기효능감이 높고 노화불안은 낮은 집단으로 나타나 가장 자신감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다.

둘째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김은하(2007), 김옥(2011), 김순이와 이정인(2007)은 경제수준에 따라 노화불안이 차이가 난다고 보고하였으나 최순옥 등(2008)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고하여 결과들이 불일치하고 있다. 역시 김은하(2007)의 연구를 제외하고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적어 보다 확고한 결론을 위해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결혼상태에 따라 자기효능감과 노화불안에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이혼, 사별, 별거 등 기타집단 여성의 자기효능감이 기혼집단 여성들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타집단에 속한 여성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위해 보육교사교육원에 등록하여 공부를 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을 수 있다.

Bernard(1972)는 여성의 결혼은 남성에 비해

큰 비용과 부담을 주며 결혼생활 및 주부역할로 인한 가족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여 우울증, 화병 등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이가 많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여성의 정신건강이 좋다는 결과(박수미, 한성현, 2004)가 발표되어 결혼이 스트레스보다 정서적 지원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대상 중 20대는 대학생이 많았고 30대 이후부터는 보육교사교육원에 등록하여 현재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많았다. 따라서 미취업 미혼여성들보다 취업(기혼)여성들이 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을 바탕으로 더 높은 자기효능감을 나타내었을 수 있다. 또한 기혼 및 기타집단 여성들이 미혼여성들보다 외모불안과 심리적 걱정 및 총 노화불안에서 더 낮은 점수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Rossi(2004) 및 Giesen(1989)의 연구결과와 불일치한 것이다. 한국여성들의 경우 기혼여성들은 자녀 및 가족들의 지원을 기초로 자기효능감이 증가하고 이것이 노화불안 감소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20대 미혼여성들의 외모에 대한 민감성 및 노화에 대한 무지로 인한 불안과 걱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일반적 효능감과 총 자기효능감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노화불안의 경우 노인접촉 불편감에서만 차이가 나타났고 다른 하위요인에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최순옥 등(2008)의 연구와 일치한다. 본 연구 및 최순옥 등(2008) 연구에서는 노화불안의 다른 하위요인들과 달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접촉 불편감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교육수준이 높으면 자아존중감이 상승하여 노화로 인한 변화에 대해 민감해져 더 불안을 느끼지만(김

순이, 이정인, 2007) 불안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 방어적인 태도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심리적 방어척도인 K척도 수준이 상승한다는 MMPI연구(김중술, 2001, pp.43-46)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무학이나 초졸여성보다 중학이상 학력자의 노화불안은 높지만 고졸이나 대졸여성의 노화불안은 중졸자보다 더 낮다고 보고한 김은하(2007)의 결과와는 불일치한다. 김은하(2007)의 연구대상은 평균연령 56.3세인 중년 및 노인여성이었고 고졸이상이 59.9%였지만 본연구의 대상은 전원이 고졸이상이며 대졸자가 67%였다. 따라서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본 연구의 여성들은 자신의 노화에 대한 직접적인 걱정과 불안을 측정하는 외모불안, 심리적 걱정, 상실불안 등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노인접촉 불편감 같은 방어적인 태도에서는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다섯째 연령과 노화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는 노인접촉 불편감에서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여성들은 연령의 증가로 노화불안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며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은 연령이 많아져도 노화불안의 감소가 적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이 노화불안의 하위요인인 노인접촉 불편감에서만 지지된 결과이다. 이것은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은 상황이 요구하는 행동을 수행할 수 있고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Bandura, 1977) 노인과의 접촉에 대해 특별한 부담감이나 불편감, 불안을 가지지 않지만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노인과의 접촉에 대한 불편감과 부담을 크게 느끼며 이는 연령이 증가하

여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노화란 어쩔 수 없는 것, 즉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무력감과 불안을 느끼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서 불안이 적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이 낮은 여성들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변화가 적은 것을 보면 노인접촉 불편감에서 자기효능감은 연령에 따른 노화불안의 감소경향을 조절 또는 강화하는 효과를 지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노인접촉 불편감이 노화불안을 더 방어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한 문항(Lasher & Faulkender, 1993)이라 한다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여성들은 노화로 인한 불안을 수용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더 방어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연령이 많아져도 달라지지 않는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낮은 여성들이 노화를 거부하고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형수술 같은 의료적인 처치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높을 수 있다. 또한 20대의 젊은 여성들이 가장 자기효능감이 낮았으므로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노화교육이나 노인과의 관계 맺기 프로그램 등 노인접촉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처치가 필요하다. 이것은 노인접촉 불편감이 노인과의 접촉이 적거나 노인과의 접촉이 있다하더라도 낮은 질적 접촉 등에서 기인할 수 있다고 한 Lasher와 Faulkender(1993)의 주장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일부지역의 고졸 이상 학력을 가진 대상에 대한 연구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40대의 기혼여성들이 가장 자기효능감이 높고 노화불안이 낮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둘째 20대의 미혼 여성들이 가장 자기효능감이 낮고 노화불안이 높은 집단으로서 노화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느끼는 집단이라 하겠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노화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노화불안은 낮다.

넷째 자기효능감이 낮은 여성일수록 노화를 거부하고 두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자기효능감이 낮은 여성들은 노인과의 접촉에 대해 더 부담스러워하며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다. 연령이 증가하면 노인접촉에 대한 불편감은 감소하지만 자기효능감이 낮은 여성들은 연령에 따른 변화가 적은 편이다.

여섯째 자기효능감이 낮은 여성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노화를 수용하기보다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등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기 쉬우며 이러한 태도는 성형 수술 등 과도한 의료적인 행위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자기효능감이 낮은 20대 여성들이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일곱째 노화불안의 하위척도 중 노인접촉 불편감은 제 변인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척도들과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으므로 노화에 대한 방어적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다시 엄밀하게 탐색하여 새로운 척도로 확장해 볼 필요가 있다.

여덟째 노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이나 노화교육은 특히 젊은 여성, 자기효능감이 낮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젊은 여성들의 자기효능감이 나이든 집단에 비해 낮았으므로 노화교육 및 프로그램을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양교과목(예를 들면 여성과 노화, 20대 여성을 위한 인

생계획)으로 채택하여 젊은 여성들의 노화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시사점을 가진 본 연구는 그러나 연구대상의 한계로 인해 연구의 일반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U광역시와 B광역시 거주 여성들로서 대학교의 보육교사교육원이나 시민교육 강좌에 등록하였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고졸 이상의 여성들이었다. 따라서 일부 도시 지역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통계적 분석에 포함된 여성들의 교육수준은 고졸과 대졸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 성인여성 모집단을 고려할 때 매우 제한적인 표집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표본의 대표성과 그에 따른 연구결과의 일반화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 학력을 가진 여성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연구의 외적 타당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노화불안척도는 외국의 것을 번안한 것으로서 경제적인 불안이 빠져있다. 그러나 아직 은퇴 후 연금제도가 사회적 보장이 불충분한 한국인에게 노화에 대한 가장 큰 걱정거리는 경제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도구는 한국인의 노화에 대한 불안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앞으로 경제적인 걱정을 포함한 한국의 실정에 맞는 노화불안 척도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강해자 (2012). 노인의 노화불안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

- 연구, 57, 191-220.
- 김순이 (2005). 일 지역 노인의 노화불안 에 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1(1), 7-15.
- 김순이, 이정인 (2007). 중년기 성인의 노화불안,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기본간호학회지*, 14(1), 103-109.
- 김신미, 김순이 (2008). 중년기 성인의 노화불안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7(3), 281-291.
- 김신미, 김순이 (2009). 노인의 노화불안 과 삶의 질. *정신간호학회지*, 18(2), 207-218.
- 김 옥 (2010). 한국노인과 미국노인의 노화불안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47, 71-94.
- 김 옥 (2011). 대학생의 노화불안 연구. *한국 사회복지조사연구*, 26, 27-56.
- 김은하 (2007). 중년 이후 여성의 노화에 대한 불안감. *한국간호교육학회지*, 3(2), 192-202.
- 김중술 (2001). *다면적 인성검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p.43-46.
- 박수미, 한성현 (2004). 기혼 여성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직업특성과 가족특성. *한국인구학*, 27(2), 155-175.
- 박현숙 (2009). 여고생의 노화지식 및 노화불안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순림, 최혜정 (2013). 중년기 성인의 노화불안과 영향요인. *성인간호학회지*, 25(4), 464-472.
- 서영석 (2010). 상담심리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시 고려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이정희, 안영식, 윤소정 (2007). 노인과의 동거 및 노인에 대한 교육 경험이 노화지식 및 노후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7(2), 179-188.
- 장휘숙 (2012). 대학생과 노인의 노화불안과 특성불안 및 5요인 성격특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1), 1-18.
- 최순옥, 김숙남, 신경일, 이정희 (2008). 일부지역 성인의 노후불안. *한국노년학*, 28(1), 19-32.
- 홍혜영 (1995). 완벽주의성향, 자기효능 감, 우울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Abramson, A., & Silverstein, M. (2006). *Images of aging in America 2004: A summary of selected findings*. Retrieved September 20, 2006, from [http://assets.rp.org/rgcenter/general/images\\_aging.pdf](http://assets.rp.org/rgcenter/general/images_aging.pdf).
- Allan, L. J., & Johnson, J. A. (2009). Undergraduat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The role of knowledge, contact and aging anxiety. *Educational Gerontology*, 35, 1-14.
- Bandura, A. (1977). *Self 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 Bernard, J. (1972). *The future of marriage*, New York: Bantam Books.
- Davis, K. (2003). Surgical passing or why Michael Jackson's nose makes us uneasy. *Feminist Theory*, 4(1), 73-92.
- Giesen, C. B. (1989). Aging and attractiveness: Marriage makes a differ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29(2), 83-94.
- Harris, L. A., & Dollinger, S. M. C.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personality traits and anxiety about ag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 187-194.
- Hurd, L. C. (2000). Older women's body image



- and embodied experiences: An exploration. *Journal of Women & Aging*, 12(3-4), 77-97.
- Lasher, K. P., & Faulkender, P. J. (1993). Measurement of aging anxiety: Development of the anxiety about aging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37(4), 247-259.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ynch, S. M. (2000). Measurement and prediction of aging anxiety. *Research on Aging*, 22(5), 533-558.
- McConatha, J. T., Schnell, F., Volkwein, K., Riley, L., & Leach, E. (2003). Attitudes towards ag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young adults from the Unites States and German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57(3), 203-215.
- McQuaide, S. (1998). Opening space for alternative images and narratives of midlife women.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26(1), 39-53.
- Rossi, A. (2004). The menopausal transition and aging process. In O. Brim, C. Ryff, & R. Kessler(Eds.). *How healthy are we? A national study of well-being at midlife* pp.153-201). Chicago: ChicagoUniv ersity of Chicago Press.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 Jacobs, B.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Watkins, R. E., Coates, R., & Ferroni, P. (1998). Measurement of aging anxiety in an Australian popu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46(4), 319-332.
- Wolf, N. (1992). *The Beauty Myth: How images of beauty are used against women*. New York: Anchor Books.
- Yun, R. J., & Lachman, M. G. (2006). Perceptions of aging in two cultures: Korean and American view on old age. *Journal of Cross Cultural Gerontology*, 21, 55-70.
- Zerbe, K. J. (2003). Eating disorders in middle and late life: A neglected problem. *Primary Psychiatry*, 10(6), 80-82.

1차원고접수 : 2015. 04. 26.

심사통과접수 : 2015. 08. 22.

최종원고접수 : 2015. 09. 04.

## Aging Anxiety of Adult women: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Shin, Kyung il

Sill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differences in self-efficacy and aging anxiety according to age, income, marital status and educa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 between age and aging anxiety in adult women in a province. For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467 women who registered in the day care education center and civic education program in the social welfare institute in two big cities. Instruments included AAS(Anxiety about Aging Scale) by Lasher & Faulkender(1993) and Self-Efficacy Scale corrected by Hong(1995).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re were different by age and marital status but was no difference by income in self-efficacy and aging anxiety. According to education there were differences in self-efficacy and fear of old people that was one factor of aging anxiety. Self-efficacy moderated the relation between age and fear of old people, implying that the level of self-efficacy play an important role as a protective factor in fear of old people in Korean adult women. Based on the results, findings and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aging anxiety, woman, age, self-efficacy